

제약산업, 35년간의 변화

화학에서 생명과학으로 분라...M&A 등 제약사 성장 동력

일부 다각화, 컨슈머 헬스케어와 동물 헬스 제품에 대한 회사의 의존과 함께 인간 처방약 중심으로 2012년 톱 제약사는 1990년대 선두 제약사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에는 일부 톱 제약사들은 독립 제약사가 아니라 화학과 제약 산업 사이에 역사적 결합을 반영하는 다국적 케미컬 기업의 제약 사업 부였다.

사업적으로 제약의 전략적 가치가 성장하고 화학과 농화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제약사업의 M&A가 현재의 제약 강국을 만들었다.

현재 제약산업은 제네릭 약물과 경쟁, R&D 생산성의 감소 등으로 또 다른 전환점에 있다.

톱 제약사들은 바이오 약물 개발 증가, 신흥시장에 성장 목표, 약물 개발에 진단법 적용 시작 등에 대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편집자 주〉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1990년 글로벌 톱 제약사

순위	회사	매출
1	머크	52.21
2	BMS	47.21
3	글락소	45.47
4	스미스클라인비참	40
5	시바-가이	38.28
6	AHP	35.45
7	헥스트	34.84
8	J&J	33.48
9	릴리	30.3
10	바이엘	29.53
11	로슈	29.38
12	산도즈	29.25
13	통프랑통랑	28.62
14	화이자	28.44
15	쉐링-푸라우	22.05

처방약 매출 기준 US\$ 1억\$

1990년에 20년 이상 동안 머크는 처방약 매출에서 1위에 बैठ크됐다. 이어 1989년 Bristol-Myers와 Squibb가 합병한 BMS가 2위를 차지했다.

1989년 미국 스미스클라인 벡맨과 영국의 비참 그룹이 합병한 글락소는 3위, 스미스클라인 비참은 4위로 뒤를 이었다.

1995년 글락소와 버로우스 웰컴이 글락소웰컴으로 합병했고 2000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글락소웰컴과 스미스클라인이 합병해 탄생했다.

1990년에 다른 선두 제약사들은 독립형에 아니라 스위스 시바-가이, 독일 헥스트, 산도즈, 프랑스 통푸랑 등 다국적 화학사의 제약사업부였다.

이런 화학사에서 제약사업부의 분리와 차후 M&A는 보다 큰 제약 기반 회사를 만들게 했다.

1995년에 독일 화학그룹인 헥스트는 1989년 마티온 Lab와 펠텔 다우 파마슈티컬의 합병으로 만든 미국 마티온 펠텔 다우를 인수했다. 1999년 헥스트의 제약사업부인 헥스트 마티온 루셀은 분리된 제약사를 만들기 위해 통푸랑과 합병했다. 사노피-신데라보는 아벤티스를 인수해 2004년 사노피-아벤티스를 탄생시켰다. 사노피-신데라보는 1999년에 사노피와 신데라보가 합병해 만들었다.

1996년 노바티스는 시바-가이와 산도즈의 제약사업부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2000년 노바티스는 농화학사업을 분리했고 신젠타를 만들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농화학 사업과 합병해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약사업에 집중하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999년 스웨덴의 아스트라 AB와 영국 제네카 그룹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제네카는 1993년 설립된 영국의 화학사인 ICI의 3개 사업의 분리로 설립됐다.

아메리카 홈 프로덕츠(AHP)는 소비자화 산업 제품, 제약, 농화학, 산업 화학으로 다각화된 아메리칸 사이나미드와 1994년 합병으로 와이어스-에이어스트로 불리는 제약사업이 포함됐다.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구축을 위해 AHP는 1998년 스미스클라인비참과 합병, 1999년 몬산토와 합병, 나중에 화이자에 인수된 워너-램버트와 합병 등 1990년대에 3개의 비정공적 딜과 판권이 있었다.

2002년 AHP는 제약과 컨슈머 헬스 사업을 분리한 후 와이어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0년대 메가M&A

2000년 글로벌 톱 제약사

순위	회사	매출
1	화이자	231.47
2	GSK	220.36
3	머크	164.89
4	아스트라제네카	142.28
5	BMS	132.79
6	노바티스	124.14
7	J&J	123.61
8	아벤티스	113.07
9	파마시아	102.46
10	AHP	95.68
11	릴리	93.24
12	로슈	92.53
13	애보트	78.13
14	쉐링-푸라우	77.39
15	바이엘	61.55

처방약 매출 기준 US\$ 1억\$

2011년 글로벌 톱 제약사

순위	회사	매출
1	화이자	564
2	노바티스	516
3	머크	401
4	사노피	395
5	아스트라제네카	370
6	로슈	349
7	GSK	345
8	J&J	277
9	애보트	259
10	테바	239
11	릴리	237
12	다케다	178
13	BMS	164
14	바이엘	164
15	임젠	163

처방약 매출 기준 US\$ 1억\$

화이자 1990년에 매출 순위 14위에서 2000년 1위에 등극은 M&A를 통해서였다. 1996년에 화이자 1위는 워너-웹버트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의 코마케팅에 합의했고 2000년 이 회사를 인수했다. 워너-웹버트의 인수로 리피토는 2000년대에 회사의 8대 블록버스터 약물 중 하나가 됐다. 2003년 화이자 1위는 파마시아를 인수했다.

1995년 파마시아&업존은 파마시아 AB와 업존 컴퍼니의 합병으로 형성됐다. 2000년 파마시아는 몬산토를 인수했고 2002년 독자적인 농화학 회사로 몬산토를 분리했다.

2009년 화이자 1위는 와이어스를 680억달러에 인수했다. 화이자 와 와이어스의 합병은 2000년대 3대 메가딜 중 하나이다.

2009년에 머크는 쉐링-푸라우를 410억달러, 로슈는 제넨텍을 470억달러에 인수했다. 2011년 사노피-아벤티스는 바이오파마젠지임을 인수했고 그 해 5월에 사명을 사노피로 단순화했다.

2011년 애보트는 2개 회사로 분리를 결정했다. 의료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기존 애보트란 사명을 사용하고 연구 중심 회사는 앱비(AbbVie)란 사명을 사용키로 했다. 완전한 분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들어서도 일부 빅딜이 추진되거나 청사되고 있어 앞으로 제약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M&A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전망이다.

향후 10년 무슨 일이...

앞으로 1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다.

2011년 글로벌 15대 제약사 순위를 보면 제넨텍 약물의 역할 증가, 바이오 약물의 중요성 확대 등 2가지 추세를 볼 수 있다. 2020년 제약산업은 블록버스터 모델의 침체와 전문 바이오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많은 M&A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 치료나 다른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서 입지 구축을 위해 진단법의 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시장의 역할과 메가M&A 등에 대한 해답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글로벌 제약산업은 역동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MP저널